다산포럼

김정남 사망 사건의 '키맨'은 중국이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의 외교여권을 소지한 김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당국은 김철을 김정남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김철이 김정남임을 확신한다. 북한은 해외에서 공작이나 정보사업을 할 때 김철·박철·이철 이라는 가명을 많이 사용한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이수용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 시절 이철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5분 동안 액체 분사에 의해 쓰러지기까지 김철의 동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김정남임에 틀림없다. 사건 발생 후 아직 김정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김정남 사망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한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두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북한 국적의 김철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다. 4명을 체포해서 조사했으며 1명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북한 국적의 용의자는 6명이다. 1명은 조사 중이고 1명은 현지에 은둔 중이며 4명은 평양으로 돌아갔다. 북한 국적의 연루자는 2명이다. 1명은 현지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이고 1명은 고려항공 직원이다. 여성 2명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계획된 팀이다.

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접근은 신중하다. 북한 대사관 측에 사망자의 시신 확인을 요청했다. 기본적인 외교적 절차이다. 시신 인도에 대해 유족 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관습이다. 사망자의 신원을 김정남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이 배후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다. 반인권·테러라는 표현도 없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북한의 접근은 감정적이다. 거칠고 비외교적이다. 사망의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부검 전에 심장마비라는 추정에 말꼬리를 잡는다. 시신 부검을 반대한다. 시신 부검의 여부는 유족 또는 현지 당사국의 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물 타기 전술이다. 공동조사를 제의한다. 사건 해결의 협조보다 여론전을 통해 조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국의 접근은 확대 재생산적이다. 김철을 김정남으로 기정사실화한다. 김정남에 대한 정보가 많음을 과시한다. 사건 배후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임을 분명히 한다. 북한 당국이 배후가 아니라면 누구냐는 선동적 인식이 담겨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통일부는 정보부도 아니고 사건조사부도 아니다. 스스로 임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책임이 크다. 국방부는 사망 소식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를 대북확성기를 통해 내보내며 심리전을 펼쳤다. 예방안보는 소홀히 하면서 대결안보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탄핵 정국에서 대결안보는 편 가르기 식 국내정치용이다. 예방안보가 진짜 안보이고 대결안보는 가짜 안보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안보는 대한민국의 적폐로서 척결되어야 한다.

정세 분석과 사건 분석의 기본은 선입관의 배제이다. 김정남 사망 사건에 대한 북한의 관련성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협조적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의 책임전가나 지연 전략은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이다. 한국은 법치국가이다. 국내외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사건의 진실 파악을 위해 조용하게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정보력의 지나친 과시와 사건의 확대재생산은 주변 국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대북 압박은 사건 종결 후에도 늦지 않다. 중국은 사건 발생 후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도 강조한다. 사건 관련 및 관심국가에 대한 권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김정남에 대한 신변 보호·관리를 해 왔다. 북한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김정남 및 일가족들에게 '외교여권'을 허용했다. 중국은 김정남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남 사망 사건의 '키맨'은 말레이시아도 한국도 아닌 중국이다.

종교칼럼

순명서약

조발그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1월과 2월 여러 교구에서 사제서품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오랜 기간 양성을 받은 신학생들이 하느님과 교회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 거룩하고 장엄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제서품식은 서약을 위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제품에 오르기 전에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며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화하기 위하여 미사성제와 화해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열심히 거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계명을 명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간구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로 더욱 깊이 결합하여, 여러분도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품주례 주교님께서는 서품후보자에게 두 손을 모으고 이를 약속받습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사제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일에 절대적으로 존경과 순명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순명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oboedientia'인데 그 어원은 라틴어 동사 'audio' 즉 '듣다'에서 유래합니다. '듣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경청한다는 의미의 'listen'과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들리는 'hear'로 구분되는데, 라틴어 'audio'는 경청을 의미합니다. 즉 순명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교회와 복음에 적합한 것인지 식별이 필요합니다. 식별하다의 프랑스어는 'discerner'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감각에 의해) 인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동물적으로 즉각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명을 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인데 그것에 덧붙여 그것을 따라야 할지 말지를 감각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른 살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순명은 순명서약 한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제로 살아가면서 평생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주교님의 말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사제가 해야 할 예언자직을 수행하는데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하느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예언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의 순명서약과도 연결됩니다. 잘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잘 식별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신부에게 순명서약을 요구했으며 다른 서약과 달리 주교와 손을 잡고 하게 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만큼 남의 이야기를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잘 들으면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오랜 전통을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요? 주교의 손을 잡고 서약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이 앞에서 앞으로 잘 들을 것이며 그것을 잘 식별하고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신부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이 서약은 필요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80%가 요구하는 것을 우기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루기에 급급한 그들은 매주 토요일 추위 속에 울려퍼지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고도 모른척하는 이들에게 순명서약이 필요할 때입니다.

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 할 것과 '아니오' 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종편에서는 매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식별하고, 다시 사람들 앞에서 옳은 말을 하는 순명 서약이 숙제처럼 남겨지는 오늘입니다.

기 고

가상현실! '속느냐 속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기 형
아시아문화원 융복합콘텐츠개발팀장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에 관한 정보와 통계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VR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이에 맞춰 문화시장과 정부 각 부처에서도 VR 산업에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정보처리 장치가 고성능화되면서 VR이라고 하면 바로 고글형태의 HMD(Heda Mount Device) 시각 정보 처리 장치를 활용한 콘텐츠가 떠오르게 된다. 더 나아가 시각적으로만 체험자의 현실 인지 과정(의식)을 속이는 HMD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운드(귀), 냄새(코), 움직이는 의자(몸) 장치들을 부가적으로 개발하여 HMD에 연동시키는 가상공간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VR 산업의 개발과제는 인간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감각기관(눈·귀·코·입·피부)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무한한 정보를 처리하는 인식기관(뇌)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감각기관에서 지각하는 세계의 정보량과 뇌가 처리하는, 혹은 좋아하는 정보의 가치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고용량의 정보가 감각기관을 아무리 속여도 뇌(의식)를 속이기는 쉽지 않다.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가 아무리 고성능이거나 경량화·투명화 되어도 뇌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면 불편해 한다.

따라서 가상현실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장치와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몸-세계-뇌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헛된 감각, 인식과 그로 인한 가상과 또 그로 인한 집착, 그래서 번뇌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피안의 현실에서 살아가자는 불교의 핵심 경전 반야심경에는 '속거나 속이거나'의 강도가 언급되어 있다.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는 모든 시작이 인간의 감각기관과 인식기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본디 고정된 그 무엇(有) 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실체가 없는 '무'(無)'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인데, VR과 관련해서는 '안이비설신의'의 그 순서가 중요하다.

즉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의 순서는 자극에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의 순서이며, 거꾸로 말하자면 의식을 속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눈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콘텐츠의 경우 창작자와 제작자들은 자신의 의도(그것이 세계의 본질이든, 자본의 재생산이든)한 바를 향유자에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주로 시각적 재현 도구를 활용해 왔다. 디지털 ICT 기술에 의해 대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이전에도 가장 성공적인 VR은 무성영화라는 매체였다. 현재는 VR 체험의 몰입경험 충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영화의 몰입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고 느껴지지만, 1895년 파리의 르 그랑 카페 뤼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상영된 최초의 영화 '시오타 역에 도착하는 기차'에서 기차가 다가오는 장면에 관객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과장된 기사도 있다.

그러나 최초의 영화 매체는 1870년대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1인용 영화 감상장치 '니콜로디언'이었다. 100년 전의 상황과 현재 VR 개발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에디슨의 영화는 HMD와 유사한 개인용 장치라 볼 수 있고, 뤼미에르의 영화는 최근 다시 개발이 시작된 대규모 큐브형 건축가상공간 장치이다. 주로 유니버셜 등 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파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가상공간 구현에 관한 과학기술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과거와 현재의 기술력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가상공간체험을 둘러싼 에디슨과 뤼미에르의 대결이 시사하는 바는 안이비설신의 각각의 요소들을 개발하여 인간의 의식을 속이는 부분적 요소들의 결합 장치들과 몸 전체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속이는 큐브형 가상공간 시스템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아직 예측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HMD형 VR과 큐브형 VR중 어느 쪽이 인간(의식)을 완벽하게 속이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투여되는 창조산업 분야에서는 결과가 궁금할 것이다. 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에서는 두 가지 VR 환경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HMD기반의 VR 체험 박물관 콘텐츠(가칭 디지털 헤리티지 박물관) 개발이 올해 말 2단계 시연 예정이며, 5월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스와의 협업으로 개발중인 큐브형 우주체험 가상공간(가칭 Waking Tru Cosmos) VR시연이 계획되어 있다. VR산업의 두 미래를 한 자리에서 예측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社 說

해도 해도 너무한 역대 정부 영남 편중 인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영남 출신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탕평인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인구비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해 온 것이다.

특히 영남 지역은 이승만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인구수에 비해 훨씬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은 김대중 정부에서만 인구 비율 대비 고위직 진출 비율이 높아 대조를 보였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박사는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 인사' 학술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무직 중 영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정부부터 감소하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3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까지 10%대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어섰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6.8%,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대로 다시 낮아졌다. 각 지역 출신 정무직 비율을 지역별 인구와 비교하면 대체로 영남 지역은 인구에 비해 많은 정무직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도 편중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및 국세청장·검찰총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는 김대중·노무현·전두환 정부를 제외하곤 한 사람도 없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특정지역 소외 인사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예산 차별로 이어져 국민 통합을 가로막게 된다. 철저히 지역 인구비율에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적재적소의 인사 중용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재 시술 자백 '세월호 7시간' 밝혀지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근혜 대통령 얼굴의 선명한 미용 시술 흔적에도 정작 주사를 놨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던 김 원장이 자백한 것이다.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김 원장은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사코 주장해 왔다. 김 원장은 3차 청문회에서도 대통령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처음 보는 사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아니면 증인의 병원에서 시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고 '맹세할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과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김 원장이 시술을 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원장은 특검이 이런 사실을 들이밀자 청와대에서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자문의사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역시 박 대통령에게 시술하고도 국회에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최근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대통령에 대한 시술 인정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직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 줄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아직도 수사 기한이 며칠 남은 만큼 의료 비리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이복형제

권력을 물려받은 이들에게 이복형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나 다름없다.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역사'에서 배다른 형제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의 하나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복형제 암살이다. 운 좋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네로는 아버지인 클라우디스 황제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동생 브리탄니쿠스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끼고 '죽이기로' 작정한다. 네로의 친어머니 아그리피나는 클라우디스 황제의 두 번째 부인이어서, '적통'으로 따지자면 네로가 배다른 동생에 비해 다소 밀리는 처지였다.

당시 겨우 15세였던 브리탄니쿠스는 간질을 앓고 있어 이따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곤 했다. 그래서 그가 독을 마시고 쓰러지더라도 사람들은 간질 발작 때문으로 여길 것이었다. 네로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독약을 제조한 뒤 연회에 이복동생을 초대했다. 독약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맛을 본 노예가 주인에게 잔을 내밀자, 불운한 브리탄니쿠스는 "너무 뜨겁다"며 잔을 돌려주었다.

독물은 바로 이때 잔에 투입됐고, 식은 음료를 마신 브리탄니쿠스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숨졌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얼굴로 황제를 빤히 쳐다보자 네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보나마나 간질 발작이겠지. 저 녀석은 어릴 때부터 늘 그랬는걸. 저러다 저절로 괜찮아 질 거야."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에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다른 형제를 살해하는 수많은 권력자가 등장한다. 이복형제는 '권력의 뿌리'가 같기에 그만큼 위협의 정도가 크기 때문일 터다. 우리도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복형제인 방석과 방번을 죽여 없앤 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복형제에게 밀려 타국에서 떠돌던 김정남이 끝내 암살됐다. 그의 인생 역정이 '권력의 무자비한 속성'을 보여주는 듯해 가슴이 서늘하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